

**【한국물류협회, 2004년 신년교류회 개최】**



(사)한국물류협회는 지난 1월 7일 갑신년 새해를 맞아 서병문 회장을 비롯해 한국물류협회 회장단사, 건설교통부 관계자, 학계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마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2004년도 정기이사회를 겸한 자리로 물류발전을 위해 올해에도 더욱 노력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칼리타 항공, 2월 12일부터 국내취항】**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칼리타 항공이 지난 2월 12부터 주 4회 국내에 취항했다. 칼리타항공은 미국 국적으로서 보잉 747 화물기를 이용하여 정기, 부정기 국제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정기운항노선은 미주-유럽노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노선은 뉴욕-시카고-앵커리지-서울-홍콩(왕복)노선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종전 45개 항공사에서 46개항공사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화물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항공사는 플라 에어카고, 유피에스(UPS), 페덱스 등 8개 항공사에서 9개 항공사로 늘어나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화물의 운송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선 화물편 운항은 총 주255회로 이중 외국항공사는 주 124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전체 국제화물편수의 48.6%로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중 외국항공사 화물기 운항편수 중 미국국적의 페덱스 주20회, 유피에스 주 19회, 플라 에어카고 주 38회 등 3개사가 총 77회를 운항하여 외국항공사 운항의 62.1%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플라에어카고는 2002년도 주 12회 운항에서 3배가 넘는 주 38회의 폭발적인 운항증가를 기록하여,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전문 항공사 및 특송업체들을 유치하여 현재 DHL과 TNT의 전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FedEx, UPS 등 여러 특송업체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내 화물터미널지역 32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에버그린 항공사의 LA-서울-홍콩 및 뉴욕-서울 노선운항을 허가할 계획에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거행】**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1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기 포장기술 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수료식을 개최했다.

포장협회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주간 지행한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총 수강신청자 148명 중 138명의 포장기술 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김선창 회장은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포장기술관리사들에 의해 포장업계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도 수강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업이 있는 곳에는 포장이 있다”고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장기술 관리사수료를 계기로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수료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번 수료식에서 98.4점으로 최우수 성적을 획득한 동일일루미늄(주) 품질관리과 이중석 대리를 비롯,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거행했다.

한국포장협회는 향후 통신교육 및 교재를 보완 제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835-9041)

**【한국RFID협회, 창립총회 개최】**

SK텔레콤, (주)신세계&C, 삼성테크스코(주), CJ시스템즈(주),  
(주)한세텔레콤, SK C&C(주),

한국후지쯔(주), 삼성  
전자(주)와 한국인

터넷정보센터,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한국네트워

크연구조합  
주요 연구기

관 등 60여개  
기업이 전자태

그(RFID)산업의 육  
성을 위해 뒀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월 5일 규역

스 신관 아셈홀에서 한국RFID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만장  
일치로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RFID협회는 △인간중심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소사이어  
티 조기구현을 통한 지식정보 강국 구현 △RFID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인 보급기반 형성을 통한 국가전반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설립목표로 했다.

한국 RFID협회는 앞으로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인증 지  
원 △기술개발 지원 △산업적용 지원 △국제협력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6개 주력 사업을 착실하  
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회는 협회 산하에 주요 관련 연구기관과 선도기업 및 전  
문가를 중심으로 한 RFID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기  
술표준, EPC 코드, H/W, 네트워크, 응용(애플리케이션), 제도/정



책 등 6개 분과를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표문수 초대회장은 "우리나라의 RFID 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높고 기술개  
발에 대한 투자도 상당수준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회가 나가야 할 사  
업방향을 시사했다.

**【건교부,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개발】**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에 대해 1단계  
로 107만평을 개발, 총 886만평을 개발한다고 지난 1월 5일 발  
표했다.

개발되는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당  
정면 및 천안시 불당동 일원으로 천안에서 3km, 아산에서 5km  
권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  
안-논산간 고속도로 남천안IC와 연결되고, 남측에는 국도 21  
호선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측에는 국도 43호선을 신설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개발지역 내에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과 장항선 장  
재역이 위치하여, 2004년에는 천안까지, 2006년에는 온양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어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  
며, 특히 고속철도로 서울역에서 34분, 광명역에서 20분이 소  
요되어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1단계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위주로 개발되며, 장래  
산·학·연 벨트를 구축,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  
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대학·첨단산업시설 등이 접근성이  
뛰어난 본 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존  
의 선문대와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현재 조성중인 탕정 테크  
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시설을 연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금번 1단계 개발계획 확정에 이어 2004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을 확정 후, 2005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하여 2007년 9  
월에 최초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중 2·3단계를 포함한 전체면적  
에 대하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1단  
계와 2·3단계의 유기적 연계 및 2단계 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북아물류 중심항만, 경쟁력 있는 항만은?】**



최근 국내 최초로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해 지역별 주요항만에 대한 분산과 집중의 원인을 파악해 화물집중도를 구체적인 수치화해 낸 논문이 발표됐다.

지난 2월 12일, 13일 양일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개최된 『2004 경제학 공중학술 대회』에서 조선대학교 박노경 교수는 '엔트로피지수에 의한 국내항만의 화물집중도 측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엔트로피지수는 통상 국가간, 지역간 소득격차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주요 항만의 집중도 및 분산도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가미 있었지만 국내에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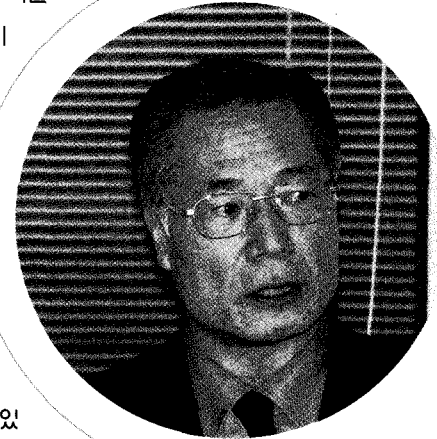
최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따른 부산항을 비롯하여,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주요항만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중북투자 및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중요 항만을 선별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항만의 역할은 국가경제의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기간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상업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여 항만 배후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의 거점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Global Supply Chain의 개념 및 초국적 기업, 전문 로지스틱스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장으로 메가허브항에 의한 대륙간 국제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항만의 대규모 유통 센터, 부가가치 운영, 조립생산기지, 로지스틱스 컨트롤 센터화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엔트로피값과 집중도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엔트로피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항만의 화물처리량에 대한 집

중도는 높아지나 항만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개별적인 확률에 의해서 가중된 개별 사안의 정보량의 합으로서 간주되는 기대되는 정보량이 기 때문이다.



<표 1>을 보면 국내항만 전체를 보았을 때, 1996년의 약간의 분산을 제외하고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국내항만들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은 경쟁력이 90년대에는 커지다가 2000년에 약간 떨어지고 있으며, 남해안의 경쟁력은 증가하다가 2000년에 감소하고 있다. 동해안은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에 맞는 정책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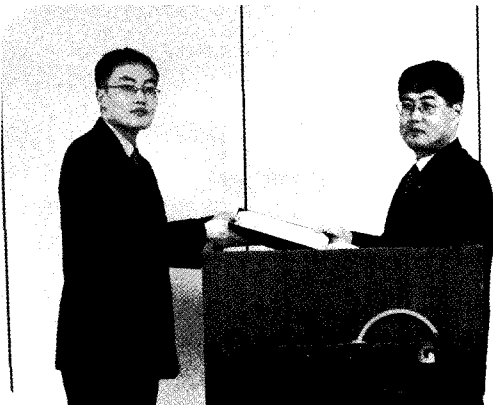
<표 1> 엔트로피지수에 의한 항만의 집중도측정 결과

지역/년도	1981	1986	1991	1996	2000
전체항만	3.083279	3.027033	2.74618	2.748071	2.701756
서해안	0.587111	0.579262	0.606125	0.630844	0.624194
남해안	1.211732	1.224737	1.286251	1.308803	1.258456
동해안	1.284436	1.223034	1.079214	1.030435	1.020724

박 교수는 이를 토대로 화물처리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정부당국, 해당항만의 운영관리 및 이용을 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항만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영물류, 올 매출액 650억 목표】**



제3자 물류 전문업체인 삼영물류(대표이사 이상근 www.sytpl.com)는 올해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35%증가한 650 억원으로 세웠다.

삼영물류는 지난해 4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자 물류의 우 수기업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

2004년 시무식을 통해 이상근 대표이사는 스피드, 기본기, 팀 플레이, 브랜드라는 4가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를 '핵심 역량 재구축의 해'로 삼고, 올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 하기위해 '핵심역량의 재구축'을 위한 4가지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은 사업장별 업무평가 시상식과 모범사원 및 최고제안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개최됐다.

**【건교부, 지방공항 노선개설을 위한 국제항공 협상 추진】**

건설교통부는 지방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속전철의 개통 등에 따라 감축운항이 예상되는 지방공항의 노선 개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 국가와 국제항공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위하여 우선 북미권 및 유럽권과 함께 중국, 일본 등과 간선노선의 운항회수 증대 및 지방도시와의 신규노선도 개설하고, 북미권 및 유럽권을 연결하는 장거리 간선 항공노선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효율성,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간선과 연계된 동남아권 중단거리 지선 항공 노선망도 확충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년중 항공회담 우선 개최 대상 국가로 상반기에는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베트남,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영국, 러시아, 인도, 독일, 홍콩, 이태리, 인도네시아, 핀란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중 국제항공협상이 우리측 입장대로 원만히 추진되면, 2004년말에는 52개 항공사, 290개노선, 주1,450회 운항, 여객 2,300만명 및 화물 235만톤 이상으로 운송실적이 증대되어 세계 8대 항공운송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 인천항에 최대규모 다목적 물류창고 착공】**

-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창고
- 자동차 보관능력 2배 증가



(주)한진(www.hanjin.co.kr 사장 이원영)은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물류창고를 착공한다.

2월말 공사가 시작되는 인천 다목적 물류창고는 99년 이후 년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 수출 중고자동차 하역시장의 한진 점유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두내 일시 장치가 필요한 일반화물 물량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공사는 민간기업에서 공사시행과 공사비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동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113억원의 공사비 전액과 이차비용을 정부에서 보전에 주는 비관리항만공사이다.

연면적 7,682평에 2층 구조로 건립되는 본 공사는 옥상 3,841

평에도 회물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며, 공사가 완공되는 2005년 2월 부터는 현재 연간 35,000대인 중고자동차 처리능력이 2배인 70,000대로 늘어나고, 연간 144,000톤의 일반화물 처리능력이 신규 창출되어 연간 총 24억원의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

이러한 매출증대 효과 외에도 창고위탁 및 아적장 임차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연간 4억 3천만원의 비용감소 효과와 인천지역 최대 창고 보유로 인천항내 경쟁업체 대비 경쟁우위 확보 및 육상 운송 등 관련사업 파생수입 증대도 기대된다.

※ "비관리청항만공사"란?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의 항만공사에 대해 지정 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만법에 의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재(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전제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실시후, 준공과 동시에 중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투자비에 달할때 까지 중시설 및 타항만 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꿈의 신기술『RFID』육성 시급】

- 물류혁신에서 불법자금 추적까지 가능
- 2008년 시장규모 30억달러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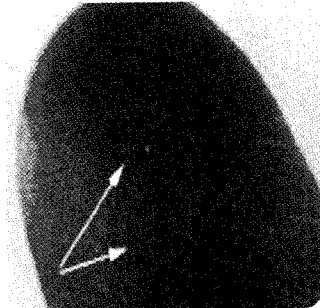
흔히 "마법의 돌"이라 불리는 RFID가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사회·문화적 혁명을 가져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박용성)는 최근 발간한 『RFID - 유통물류 정보화 도구』보고서를 통해 "용역범위가 매우 다양한 RFID 칩이 기업의 원가절감과 이익창출은 물론 시공을 초월한 정보 교류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며, 2002년 기준으로 9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시장규모가 2008년에 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선, RFID는 유통물류산업의 비점축 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기대된다. RFID 칩이 물품마다 부착된 "미래형 매장"에서는, 소형 컴퓨터가 부착된 쇼핑카드를 밀고 다니기만 하면 찾는 상품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 지와 상품의 원산지, 가격, 보존기한, 조리방법 등을 알아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결제는 쇼핑카드에 상품을 담는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져 계산대를 통과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한 RFID칩을 지폐에 내장하게 되면, 인식기 근처를 통과시키

는 것만으로 많은 양의 지폐의 진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지폐의 유통과정이 그대로 기록돼, 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까지도 추적 가능하다.



<일본 히타치 "유칩"의 실제크기>

최근 일본 히타치는 연성이 강한 0.03mm 두께의 초소형 RFID칩(제품명 '유칩')을 개발하여, 유로(Euro)화에 내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유럽중앙은행(ECB)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RFID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현재 주춤하고 있는 IT산업에 대규모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세계 RFID 시장규모는 9억 6,500만 달러에 달하며 2008년까지 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빠른 행보와는 달리, 국내 RFID 기술력은 현재 크게 뒤쳐져 있다. 현재 RFID 칩 시장은 히타치, 인터맥, TI(Texas Instruments), 필립스 등 해외 반도체 회사가 선점하고 있다. 이 칩들을 수입·부착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이 개당 1,500~1,900원에 이르게 된다.

2005년까지 칩 가격이 60원(5센트)대로 떨어질 경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RFID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관련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에서는 휴대폰 산업과 같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수준은 RFID 칩을 만드는 핵심기술은 부족하고, 고작 무선안테나 제작기술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R&D투자와 정부지원 없이는 수입에 의존한 꿈의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RFID 기반기술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술현황, 표준화 추세, 응용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보고서를 권영빈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으로 사람, 상품, 차량 등을 비점축으로 인식하는 기술.

**【FedEx, 2003년 아시아 지역 153개 회사 중 17위 차지】**



항공 특송회사 FedEx (www.fedex.com, 한국대표이사 데이빗 카든)는 아시아 유력 경제지인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매년 실시하는 최고의 아시아 기업 설문조사인 Review 200 2003에서 17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FedEx는 서비스, 업무수행 및 리더십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 받아 아시아 회사 중 17위를 차지했다. FedEx는 2002년에도 이 조사에서 18위를 차지한 바 있다.

FedEx 코리아의 데이빗 카든 사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오직 최고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FedEx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프로페셔널 정신을 반증해주는 좋은 증거"라고 말하고, "FedEx의 직원들의 매일의 노력과 헌신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인정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항만하역협회 신임 회장에 곽영욱 사장】**

한국항만하역협회 회장에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 선출되었다. 한국항만협회는 2월 20일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은 5년간 회장을 맡았던 신태범 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곽영욱 사장을 추대,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는 (주)동방의 김진근 사장을 선임했다.

또한 정기총회는 신임 곽영욱 회장의 긴급 발의에 따라 협회의 명칭을 향후 '한국항만물류협회'로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추대된 곽영욱 사장의 대한통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명에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신태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주요 추진업무는 1) 부두운영회사제도와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회원사의 부담 경감 대책 2) 노사 협조 체제의 공고화 3) 회원사 경영수지 개선 위한 각종 사업 발굴 4) 항만하역산업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개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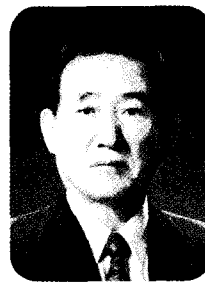
**【인물동정】**

**>> 한국물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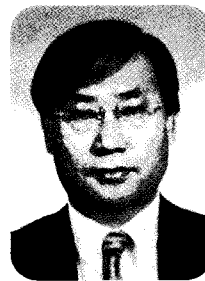
>> 신 유 균 전무이사

- \* 약력
- 1986년 삼성전자(주) 부장
- 1993년 삼성항공산업(주) 사업부장
- 1996년 삼성기계소그룹 임원
- 2000년 (사)한국물류협회 전무이사



>> 김 정 환 감사

- \* 약력
- 1980년 태평양 물류사업 본부장
- 1996년 한국물류협회 상근 부회장
- 1997년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
- 1998년 명지대학교 유통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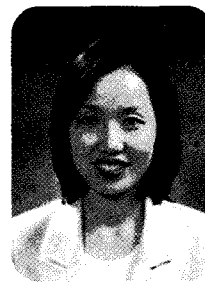
>> 허 진 옥 감사

- \* 약력
- 1987년 한국IBM(주) 부장
- 1997년 한국오라클 이사
- 1999년 SAP코리아 상무이사
- 2003년 에이앤디코리아 전무



>> 원 종 진 이사

- \* 약력
- 2003년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물류부문)
- 1984년 대전광역시 화물운송 차주협회 이사
- 1998년 대전광역시 개발위원
- 1999년 대전광역시 교통정책 실무위원
- 2000년 삼아통운 (주)대표이사



>> 이 현 주 이사

- \* 약력
- 1988년 NAB Australia
- 1995년 Uberseebank (AIG)
- 1998년 Extrans / Exlogis(주) 대표이사

》》 (주)한진



》》 이 원 영 대표이사

\* 약력  
1972년 서강대 철학과졸  
1997년 미주지역본부장  
1999년 화물영업본부장  
2000년 부사장  
2004년 (주)한진 사장

》》 용마유통(주)



》》 박 동 환 이사

\* 약력  
1978년 한양대 사학과 졸  
1980년 동아제약입사  
2000년 동아제약 지점장  
2004년 용마유통 영업담당 이사

》》 현대택배(주)



》》 김 병 훈 대표이사

\* 약력  
1977년 현대중공업 경리·회계 담당  
1979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재무담당  
1999년 현대반도체 청주사업장 총괄담당 전무  
2000년 현대전자산업 경영지원본부장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 경영지원본부장



》》 최 홍 원 상무

복합운송사업본부장



》》 원 중 두 상무

택배사업본부 영·호남지역본부장

》》 글로비스(주)



》》 홍 진 기 상무이사

\* 약력  
1977년~1996년 현대정공  
1996년~1998년 현대우주항공  
2001년 글로비스 국내사업부장



》》 김 광 현 상무

\* 약력  
1977년~2001년 현대자동차  
2001년 글로비스 해외사업부장



》》 조 태 호 이사대우

\* 약력  
1983년~2000년 현대자동차  
2001년 글로비스 재정실장

【연구소명 변경】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부설연구소 ⇒ 한국물류산업연구소

